

02

베트남

Vietnam

베트남 메콩델타(Mekong delta) 탐방기

- › 활동기관 : 베트남 응용역학 및 정보 연구소[IAMI]
- › 자문분야 : 정보 통신
- › 자문내용 : 인공위성 영상 활성화 정책 자문
- › 성 명 : 김 진 철



베트남 메콩델타

베트남은 크게 3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 다낭 등 휴양 도시들과 베트남 고대 수도 후이엔 등의 유적 도시들이 있는 중부 지역, 그리고 베트남의 경제도시라 할 호치민시와 그 이남으로 메콩델타 지역이 있다.

베트남의 메콩델타는 메콩 강의 하류, 베트남의 남서부를 이루고 있는 광활한 삼각주를 말한다. 메콩 강은 중국의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를 거쳐 베트남까지 이르는 총 길이 4,020km에 달하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강이며, 이 중 마지막 220km가 베트남을 흐른다.

메콩델타에 이르는 메콩 강은 아홉 개의 지류로 흩어져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베트남인들은 이런 연유로 구룡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메콩델타는 메콩 강 상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황토 물이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 주고 있어 베트남의 최대 곡창지대가 되었으며 이곳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이 베트남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해 베트남 경제의



메콩델타 지역도



메콩델타 수산 시장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전통문화를 잘 보전하고 있는 메콩델타 지역 사람들은 소박하지만 활기찬 생활을 이어간다. 특히 물과 불가분의 관계인데, 집 바로 앞을 흐르는 강물을 받아 세탁을 하고 아이들은 그 강에서 하루 종일 노는 등 하루의 시작과 끝을 메콩 강과 함께한다. 강 주변에는 각지로부터 모이는 식재료를 사고파는 수산 시장이 있는데, 배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와 각종 과일, 채소, 고기 등을 사고파는 모습은 그들의 소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다.

메콩델타의 관광 도시, 미토를 가다

메콩델타의 관광 도시라면 단연 미토라 하겠다. 미토는 베트남의 전통문화는 물론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베트남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꼭 한 번 들르는 관광지이다. 마침 미토에서 한국-베트남 공동 워크숍이 열려 미토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행사를 공동 주관한 짠 타이 빈 박사가 안내를 자청하여 우리 일행에게 미토를 안내해 주었다. 호치민에서 차로 약 2시간을 달려 미토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관광객들이 선착장에 모여 있었다. 선착장에는 베트남 특산물을 파는 사람들이 손



1) 미토의 수로 2) 차를 마시는 동안의 연주

님과 열띤 흥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일행도 이것저것 살펴보며 값을 물어보는 등 관광 분위기에 젖어 들기 시작하였다.

선착장에는 많은 배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손님을 다 태운 배는 강을 가로 질러 가며 선상 관광을 시켜 주고 있었다. 빈 박사의 주선으로 우리 일행은 전용선으로 메콩 강 투어를 시작하였다. 메콩 강 투어에 쓰는 배들은 어선을 개조한 소형 목조선으로, 어떤 배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용의 모양을 한 뱃머리가 그려져 있었는데 이는 배가 조난당하지 않기를 기원하는 주술 같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1시간 정도 누런 황토 물을 가로질러 건너편 4개의 섬을 두루 둘러본 후 최종 관광지에 내리니 물건을 들고 팔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을 지나쳐 조금 걸어가다 보니 큰 비단뱀을 관광객들의 목에 감아 주는 사람도 있었다. 약간 들뜬 기분으로 코코넛 세공 공방, 꿀 농장, 열대 과일 진열 상점 등을 둘러본 우리는 잠깐 쉴 겸 차를 마시기로 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연주해 주는 베트남 전통 음악이 운치를 더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전통적인 목조 건물로, 특히 지붕은 야자 잎으로 촘촘히 만들어져 있었다. 식당에 앉아 주문하려고 하니 종업원이 이곳의 명물인 코끼리 귀 생선을 권했다. 속는 셈치고 주문을 했는데, 음식이 나오고 보니 특이한 생김새와 잘 구워진 모양이 제법 먹음직스러웠다. 해물탕과 씬밥을 곁들여 점심을 먹은 후에는 이곳의 명물인 원숭이 절로 안내를 받았다. 알고 보니 바나나만 먹은 스님이 이곳에서 득도를 한 이후 이곳 원숭이 절이 미토 섬을 수호하는 상징이 되었다고 한다.

메콩 강 투어를 마치고 호치민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치민 근교에 새로 건설되고 있는 공업단지(Industrial Park)를 둘러보았다. 장차 이곳에 세워질 인공위성 기지국 부지를 보여주며 제법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안내자의 모습에서 베트남의 미래 모습을 보는 듯하였다. 또한 호치민 근교 공단에 삼성전자 공장이 건설되고 있고, 삼성전자와 연결된 협력 업체들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곳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었다. 아

올러 호치민 전철 1호선이 건설 중에 있고, 베트남의 남북을 이어줄 고속 도로 건설도 한창이었다. 또한 고속 철도 건설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호치민 시에 새로운 국제 공항을 건설하기로 의결하는 등 베트남의 비약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음에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

까마우의 미래, 새우를 만나다

베트남 최남단에 위치한 까마우는 까마우 성의 수도로서 베트남 농수산물의 최대 생산지 중 하나이다. 특히 새우 생산 및 수출은 세계 1위로 베트남의 경제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인공위성으로 본 메콩델타 새우 양식장

까마우 지역의 새우 수확은 KBS 다큐멘터리 기획 시리즈 골든 아시아 프로그램에 소개될 정도로 특이하다. 해안가에서 자란 자연산 새우와 물고기들이 바닷물이 차오르면 새우 양식장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물이 빠진 후 그물을 걷어올려 갇힌 새우들을 잡으면 된다. 그만큼 베트남 해안가의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는 말로, 메콩 강에 실려 온 풍부한 영양분이 베트남 남지나해에 사는 어류들을 살찌우면서 메콩델타 지역은 수산 자원의 보고가 된 것이다.

까마우 성의 초청으로 까마우를 방문하게 된 일정에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난 베트남 메콩델타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우리 일행이 까마우를 방문한 것은 까마우 성 해안가에 드넓게 자리 잡은 새우 양식장의 새로운 개발을 협의하기 위함이었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쌀 경작지가 바닷물에 침수됨에 따라 대책도 함께 협의했는데, 해안가의 변화 모습을 관찰하는 인공위성 영상 활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1) 길에서 과일 주스를 만드는 모습 2) 베트남의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까페스어다 3) 그물 침대에서 즐기는 막간의 휴식

호치민에서 까마우까지는 버스로 8시간이 걸렸는데, 힘든 버스 여행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중간에 들른 휴게소였다. 사실 휴게소라고는 하지만 지붕도 문도 없이 개방된 넓은 자리에 덩그러니 식탁과 의자만 놓인 게 다였다. 그나마 피곤한 여행자가 잠깐 쉬거나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물 침대(Hammock)가 몇 개 설치되어 있어 휴게소라는 구색은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즐기는 베트남의 강한 커피, 거의 에스프레소 커피에 해당하는 커피를 마시다 보니 베트남의 생활 문화의 단면을 맛보는 것 같았다.

까마우에 도착한 다음 날 새우 양식장을 둘러보았다. 모터보트로 강줄기를 따라 30여 분을 달려 양식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양식장이라는 곳이 그저 허허벌판이었다. 앞으로



새우 양식장 앞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새우 양식장이라는 설명을 듣고 면적을 물어보니 약 30만ha라고. 상상이 잘 되지 않는 면적에 깜짝 놀랐다. 개발 조감도를 보여주며 지금 서 있는 곳이 시험 개발 중인 양식장이라고 설명하는데, 계획대로 된다면 세계 새우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큼 대단했다. 하지만 생산량이 너무 많으면 새우 값이 폭락할 터인데... 혼자만의 기우도 가져 보았다.

새우 양식장 투어가 끝날 무렵 안내자가 차나 한 잔 하자며 우리 일행을 인근 가정집으로 안내하였다. 집주인과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들으니 자신의 집 뒤로 보이는 큰 새우 양식장이 본인 소유라고 했다. 또한 원래는 집 앞에서 공사 중인 도로까지 자신의 땅이었는데, 도로 공사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고 수용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표정으로 봐서는 불만보다는 자랑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었다. 새로 생길 큰길까지 나와 보니 길 앞으로 새집이 완공되어 가고 있었고 집 앞에는 커다란 화강석이 놓여 있었다. 그 돌의 용도를 물으니 집 정문 기둥에 쓸 돌인데 베트남 중부 채석장에서 실어왔단다. 토지 보상비 적다며 우는 소리를 하더니 정말 엄살이었던 모양이다. 안내인에게 슬쩍 물으니 우리나라로 치면 이장급으로, 이곳의 주요 유지 중 한 명이라고….

최근 베트남은 늘어나는 땅 부자가 하나의 풍속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던데 허튼소리는 아닌 모양이었다. 새로 짓고 있는 집을 보니 앞은 좁고 뒤로는 긴 전형적인 베트남 가옥 구조였다. 베트남은 법으로 대지 1필지당 앞은 10m 이내로 제한하지만 뒤로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새로 지은 집을 둘러보고 나오면서 집주인에게 대박이 났다고 덕담을 건네니 싱긋 웃는다. 그러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놀러 오라고 한다. 인사하고 돌아 나오는데 안내하던 현지인이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안내를 했다. 어떤 음식인지 물어보니 웃으며 개고기라 대답했다.



1) 초대받은 베트남 가정집에서 차를 마시며 2) 손님 접대를 위한 9가지 개고기 요리 세트

개고기 음식을 내오는데 종류가 무척 많았다. 그러면서 남부의 개고기 요리 종류는 9가지로, 7종류인 북부의 개고기 요리보다 더 많으며 자랑 아닌 자랑을 했다. 그 모습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졌다. 또한 다양한 개고기 요리를 만드는 베트남의 생활 문화도 알 수 있었다.

호치민으로 돌아오는 때에도 갈 때처럼 2층 버스를 탔는데, 2층 좌석에 올라가면 발을 쭉 뻗고 누울 수 있는 좌석이 있어 생각보다 편하게 올 수 있었다. 출발 직전에 베트남의 그 진한 커피를 한 잔 더 마셨는데, 지인의 말처럼 베트남 커피는 마실수록 중독이 되는 것 같았다. 베트남 커피를 마시다 한국으로 가면 커피가 너무 심심하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다.

간토, 남부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

간토(Can Tho)는 호치민 이남 최대 도시이며, 메콩델타 지역을 대표하는 행정 도시이다. 간토는 지방의 성에 속하지 않는 중앙 정부 산하 5대 독립 도시(하노이, 하이퐁, 다낭, 호치민, 간토)의 하나로, 메콩델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로 시집을 오는 베트남 신부의 많은 수가 베트남 남부 출신이고 그중에서도 간토 출신이 많아 우스갯소리로 이곳에서는 한국을 사돈 도시라고 부른다고.

특히 최근에 한국과 베트남 간 협력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해외 원조 무상 지원으로 2015년 11월 KVIP(Korea-Vietnam Incubator Park)를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건설 비용이 약 160억 규모라고 하니 한국 정부가 간토에 주는 큰 선물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KVIP는 한국과 베트남 간 동반자 위상의 상징으로 베트남 남부 지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때 마침 베트남 진출을 타진하기 위해 간토와 KVIP을 방문하려는 한국 기업이 있어 동행하게 되었다.

호치민과 깐토의 지리적 거리는 서울과 대전 정도로 그리 멀지 않지만 워낙 도로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 차로는 4시간 가까이 가야 한다. 한창 고속 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니 완공 후에는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깐토는 인구 100만의 도시로서 아직 대도시라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메콩델타 지역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라 하겠다. 깐토의 호텔에서 휘돌아 흐르는 메콩 강 본류와 그 주변의 광활한 지역을 보며 지금 내 눈앞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았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베트남의 잠재력을 느끼게 되었다.

깐토에 도착한 다음 날 KVIP와 수산 가공 공장을 방문하였다. KVIP는 건물이 완공된 상태로 기업들의 입주만 남겨 놓은 상황이었다. 그간 이곳에서 수고한 김희섭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베트남 시장에 안착하고 그 중심에서 활기로 가득할 KVIP의 그런 미래 모습을 그려 보았다.

깐토의 수산 공장 방문은 베트남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일순간에 바꾸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공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철저한 소독을 거치고, 방호복과 장화를 착용한 후 한 번 더 소독 과정을 거쳐야 공장 내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공장 내부에는 자동화된 생



1) 깐토를 휘돌아 흐르는 메콩 강 본류 2) 깐토의 현대식 수산 가공 공장

선 처리 장비들이 쉼 없이 돌아가며 생선의 필렛(fillet)을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생선 필렛의 포장·이송·냉동 처리가 모두 자동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과거와 다르게 훨씬 발전한 베트남의 가공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지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에서 처리되는 생선 필렛들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데, 해외 수출을 위하여 HACCP 인증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인증을 받았으며 제품에 대한 자부심 또한 감추지 않았다. 특히 한국에도 상당한 물량이 수출된다며 우리 일행에게 은근한 호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사실 깐토는 우리나라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나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한국과 깐토의 교류 협력이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한편 깐토에 있는 베트남 남부 최대 규모인 깐토 대학에 NIPA에서 파견된 송성호 자문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는 등 날로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어 이 또한 자문관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끼게 한다.

금년에 체결된 한국과 베트남 간 FTA로 베트남은 한국과 더욱 가까워진 경제 협력국이 되었다. 베트남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베트남 투자 제1위 국가이니 한국이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하겠다. 문화적으로도 베트남의 유교적 문화와 풍습은 한국과 유사하여 문화적 거리감이 없이 친근하며,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 친근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류의 인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교류와 협력 사업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우호적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베트남
김진철**

- 버지니아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 박사
- 前 국방과학연구소 근무
- 前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근무
- WFK NIPA Advisors 베트남 컴퓨터 지식공학부 파견